

KÓKKOS2

• 코크스는 '한글의 밀'을 의미, 발행인 최정관·편집주간 이강동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4길 32 • TEL 02-950-5401 • www.bible.ac.kr



FEB 2026

VOL. 286

▲ 2월 10일 거행되는 2025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학부 71회)에서 총장상, 총동문회장상, 선교회이사장상 수상자로 선정된 자랑스러운 얼굴들. 왼쪽부터 총동문회장상 권하진(사복), 선교회이사장상 유지은(간호), 총장상 이유진(영보), 총장상 김병윤(컴소) / 사진 촬영, 황미숙(성서3) [관련 기사 4면]

우리 대학 교육의 질과 성과 입증

3개 영역 37개 세부요인 모두에서 월등 앞서

2025 학부교육실태조사(K-NSSE), 발표

2025 학부교육실태조사(K-NSSE, Korea-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_성균관대 교육과미래연구소)에서 우리 대학은 이 진단 도구의 3개 영역 37개 세부요인에서 비교 집단인 전국 참여대학(106개교), 수도권 중소형 대학(26개교), 글로컬대학(19개교)과 비교, 월등하게 상위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도표) 이는 우리 학우들의 학습 과정 및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실증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결과이다.

이번 조사의 3개 영역은 ▲ 학습참여 ▲ 학습자 심리 ▲ 학생 성과이다. 3개 영역 전체 평균은 우리 대학이 69.7점(전국 61.0)으로 우수했고 이 가운데 ▲ 학습참여는 우리 대학 65.7점(전국 54.8)로 나타나 학우들이 학습 참여에 매우 긍정적임을 볼 수 있다. 학습참여 영역에는 5개 세부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 학업도전 75.1(전국 66.5, 차이+8.6), ▲ 교우와 학습 65.9점(전국 52.6, 차이+13.3), ▲ 교수와 경험은 69.1점(전국 56.3, 차이 +12.8), ▲ 대학 환경 67.9점(전국 61.3, 차이+6.6), ▲ 고효과 프로그램

50.6점(전국 37.2, 차이+13.4)으로 각 요인마다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

이 조사의 문항들은 몇%, 몇점, 정답 오답을 묻지 않고 응답자의 참여 정도, 생각, 동료와의 관계, 편안, 불편함 등을 질문한다. 반성적 학습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의 예는 '나의 행동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돌아봄', '어떻게 하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해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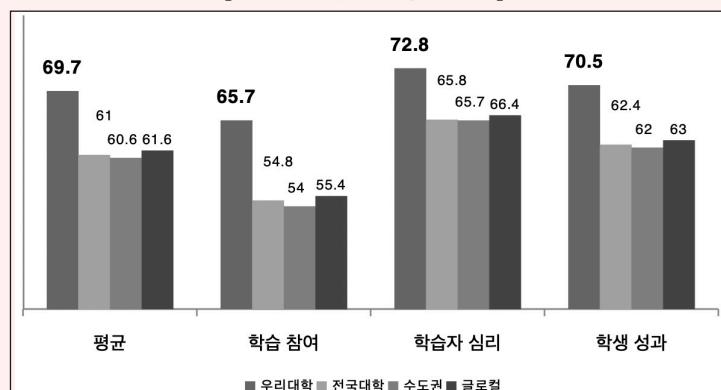
정부와 언론기관의 대학 평가가 주로 투입과 산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학부교육실태는 교육환경, 프로그램, 대학생의 학습경험 등 교육의 질과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늘날 대학이 교육 본연의 영역을 떠나 찰나적 성과에 매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에 학생들의 참여(Engagement)정도가 타 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은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2025년 K-NSSE 대학 유형별 비교 결과표

영역	통합 요인	2025 우리대학	전국 대학	수도권 중소형	글로컬 대학
	전체 평균	69.7	61.0	60.6	61.6
	학습 참여	65.7	54.8	54.0	55.4
	학습자 심리	72.8	65.8	65.7	66.4
	학생 성과	70.5	62.4	62.0	63.0
학습 참여	학업도전	75.1	66.5	66.8	67.2
	교우와 학습	65.9	52.9	52.7	53.5
	교수와 경험	69.1	56.3	55.2	56.8
	대학환경	67.9	61.3	60.2	62.6
	고효과프로그램 참여	50.6	37.2	35.2	36.8

[K-NSSE 영역별 평균 점수]



우리 대학
영유아보육학과 A등급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

교육부가 5일 발표한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에서 우리 대학 영유아보육학과 교직과정은 A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 교직과정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장관 표창도 받는다. 진단은 교원양성기관의 미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체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여건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반대 교직과정 115개 대학 중 우리 대학을 비롯한 7개 대학이 A등급을 받았다. A등급을 받은 7개교는 한국성서대, 건대 Glocal, 고신대, 광주여대, 나사렛대, 숙명여대, 예수대학이다.

115개교 가운데 7개교(5%)가 A등급, 36개교(31%)가 B등급, 47개교(41%)가 C등급, 22개교(19%)가 D등급, 3개교(3%)가 E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C등급을 받은 47개교는 정원 30%를, D등급을 받은 22개교는 정원 50%를 감축해야 한다. 또한 E등급을 받은 3개교는 교원양성 기능이 폐지될 예정이다. 해당 대학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양대 에리카(ERICA) △협성대다. 교직과정 감축 예상 인원은 900여 명이다.

최은희 학사부총장
교육부장관 표창
대학혁신사업 유공자로



▲ 최은희 학사부총장이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왼쪽 최경권 총장, 오른쪽 최은희 학사부총장)

최은희 학사부총장이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수행 유공자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표창장 전달은 22일 총장실에서 최경권 총장이 전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 스스로 교육혁신을 통해 자율성을 향상토록 하는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이다.

최은희 부총장은 "우리 구성원 모두가 대학혁신을 이루기 위해 함께 수고한 결과"라고 말하며 감사를 전했다.

대학인사

일반대학원 AI융합학과
설치 TF위원회

- ▲ AI융합학부학부장 겸 인터넷신기술연구소장 **한진호** 교수
-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학과장 **현우석** 교수
- ▲ Academic Advisor [NSLB교육지원단] **이슬기** 교수 (기초교양교육과)
- ▲ 국제교류센터센터장 **박인혁**
- ▲ 위원장 **임지영** 교수(AI융합학부)
- ▲ 위원 **한진호** 교수(AI융합학부 부장), **김원빈** 교수(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양단아 교수(AI융합학부), **박상민** 교수(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이길형 교수(대우교수)
- ▲ 자문위원 **송희경** 교수(산학자문교수)

2026년 3월 1일
 총장 최경권

제71회 졸업 예배 및 학위수여식

2월 10일

박사 4명, 석사 64명, 학사 190명
설교, 조정민 목사(베이직교회 담임)



2025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학부 71회, 대학원 38회)이 2월 10일 오전 10시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거행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 철학박사 4명, 석사 64명(일반대학원 14, 신학대학원 30, 사회복지대학원 7, 보육대학원 13)이 전공 학위를 받게 되고 학부에서 전체 190명(성서학 32, 사회복지학 51, 영유아보육학 33, 간호학 47, 컴퓨터소프트웨어학 27)이 학사 학위를 받는다. 철학박사 수여자는 지중배, 표길홍, 김경애, 김현정 원우이다.

영예의 총장상 수상자로 대학원의 이신실(사회복지대학원) 원우와 학부의 이서희(사회복지학과) 학우 등 4명이 단상에 오른다. 이 밖에도 대학원장상과 이사장상 및 총동문회장상과 선교회사장상을 비롯해 외부기관장상 포함 전체 19명이 수상의 기쁨을 누린다.

수여식에 앞서 졸업 예배에서 조정민 목사(베이직 교회 담임)가 ‘그는 왜 세상으로 갔나?’로 말씀을, 이우근 목사(중앙성서교회 담임), 반종원 목사(수원침례교회 담임)가 기도와 축도로 참여하게 된다.

학위수여식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대학원

- ◆ **총장상** ▲이신실(사회복지)
- ◆ **대학원장상** ▲윤슬기(보육) ▲한정화(신학) ▲강민정(일반 간호)
- ◆ **이사장상** ▲허은희(신학)
- ◆ **총동문회장상** ▲이신실(사회복지) ▲이지영(일반 간호) ▲신가영(보육)
- ◆ **선교회사장상** ▲허은희(신학)

◆ 학부

- ◆ **총장상** ▲이서희(사복) ▲ 이유진(영보) ▲이윤경(간호) ▲김병윤(컴소)
- ◆ **이사장상** ▲유준하(사복)
- ◆ **총동문회장상** ▲권하진(사복)
- ◆ **선교회사장상** ▲유지은(간호)
- ◆ **에스라상** ▲임주만(성서, 성경 7독)

각종 위원회 학생대표 위원 임명

- ▲ **기금운용심의회** ▲온라인강좌운영위원회 ▲인권센터운영위원회
이찬호(비상대책위원장), **김경남**(비상대책위 부위원장)
- ▲ **대학소통위원회**
이찬호(비상대책위원장), **황다애**(비상대책위원)
- ▲ **대학평의원회**
이찬호(비상대책위원장), **정태리**(26년 대학원 원우회장)
- ▲ **대학혁신위원회** ▲장학 및 학생복지지도위원회
이찬호(비상대책위원장)
- ▲ **대학혁신운영위원회** ▲대학혁신자체평가위원회
김경남(비상대책위 부위원장)
- ▲ **등록금심의위원회**
이찬호(비상대책위원장), **김경남**(비상대책위 부위원장),
정태리(26년 대학원 원우회장)

2026년 1월 5일
총장 최정권

2026학년도 학부 장학대상자

331명 총 2억 2천 5백만 원

전체 최우수성적장학
황다애(성서2) 학우



▲최우수상
황다애(성서2)

28일 2026학년도 1학기 성적장학대상자가 발표되었다. 28일 장학위원회 사정을 거쳐 우수성적장학 44명을 비롯해 전체 331명이 선정되었다. 전체 장학금 지급 총액은 2억 2천 5백만 원(국가장학금 제외)이다.

영예의 전체 최우수성적장학에는 황다애(성서 2) 학우, 학과별 최우수성적장학은 이지학(사복3) 학우를 포함 15명이며 김서현(영보3) 학우 등 27명은 우수성적장학으로 기쁨을 누렸다. 신입생 성적장학은 등록을 마친 후 성적순에 따라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교내 성적장학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전체 최우수성적장학 ▲황다애(성서2)

◆ 최우수성적장학

- | | | | |
|-----------|---------|---------|---------|
| ◇ 성서학과 | ▲김주빛(3) | ▲이기진(2) | ▲김정현(1) |
| ◇ 사회복지학과 | ▲이지학(3) | ▲박예린(2) | ▲이수민(1) |
| ◇ 영유아보육학과 | ▲추소원(3) | ▲차승민(2) | ▲하수림(1) |
| ◇ 간호학과 | ▲손진서(3) | ▲박세현(2) | ▲김경민(1) |
| ◇ AI융합학부 | ▲김지호(3) | ▲송준서(2) | ▲김윤하(1) |

◆ 우수성적장학(2등/3등)

- | | | | | |
|-----------|------|----------|------|---------|
| ◇ 성서학과 | ▲조홍진 | ▲남궁이례(3) | ▲안차남 | ▲이순오(2) |
| | | ▲김경선(1) | | |
| ◇ 사회복지학과 | ▲서지영 | ▲이민수(3) | ▲최명훈 | ▲조지훈(2) |
| | ▲유주연 | ▲민수진(1) | | |
| ◇ 영유아보육학과 | ▲변해원 | ▲김서현(3) | ▲박소하 | ▲김혜린(2) |
| ◇ 간호학과 | ▲고서현 | ▲하승민(3) | ▲이소희 | ▲윤여경(2) |
| | ▲박영서 | ▲권민서(1) | | |
| ◇ AI융합학부 | ▲박세윤 | ▲이도아(3) | ▲오성균 | ▲정소이(2) |
| | ▲박현진 | ▲최현준(1) | | |

◆ 특별성적장학 ▲마다현(컴소4)

홍설자 이사 1억 발전 기금 후원

현재 캠퍼스 구입에 큰 공로



▲홍설자 이사

홍설자 이사가 학교 발전 기금 1억 원을 후원해 주었다. 홍 이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떠나는데 학교 발전에 사용해 달라며 쾌척하였다.

홍설자 이사는 남편 구다윗 교수와 함께 오랫동안 외국인 교수로서 학교에 기여해 왔다. 이들 부부 교수는 우리 대학이 1976년 불광동에서 이곳 상계동 캠퍼스로 이사하는 과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당시 극심한 재정난으로 폐교 직전까지 내몰렸을 때 미국에 가서 연고가 있던 교회, 개인,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여 후원도 받고 빌리기도 하여 학교를 극적으로 소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들 부부의 혼신은 설립자의 저서 「나의 증언」에 자세히 나와 있다.

구다윗 교수는 2018년 우리 대학으로부터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받기도 하였다.

「KBU교직원 소통 워크샵」 양양 솔비치 리조트에서

송희경 교수 '구성원들 소명 의식과
진정성이 조직을 지속 가능케'



▲ KBU 소통워크샵에 참석한 교직원들

「KBU교직원 소통 워크샵」이 26~27일까지 양양 솔비치 리조트에서 진행되었다. 소통과 이해, 공감의 시간을 통해 활력있는 성서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자리였고 70명이 참석했다.

송희경(본교 산학자문 교수) 교수가 '소명이 역할을 만날 때'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송 교수는 경력 단절을 딛고 CEO에 오르기까지는 역할에 대한 분명한 소명 의식, 선택과 결단이 더해져 가능했다고 말했다. "구성원들의 소명 의식과 진정성이 조직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가는 동력"이라고 말하고 "개개인의 주인의식과 서로에 대한 공감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직의 리더들은 "최고보다는 최적의 인재를 향한 균형적인 시각과 유연성, 구성원에 대한 격려가 조직을 능동적으로 발전시키게 된다"고 조언하였다.

최정권 총장은 학우들이 "학교에서 만족감을 느끼도록 환경과 시설개선에 힘써 왔다며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다음 세대 양육의 중요성 및 후배를 배려하고 경청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라고 권면하였다.

박태수 목사는 "하나님은 엘리야가 절망에 있을 때 물과 음식으로 회복시킨 건 공동체를 배려한 것"이라며 "주님의 쉼으로 새 학기를 잘 준비하자"라고 말씀하였다.

간호사 국가시험 46명 100% 합격 확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34명(82%)이 합격권

올해 우리 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46명 전원이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이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3일 시험을 마친 후 학우들이 자체 채점한 결과 전원이 합격권 내에 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식적인 합격자 발표는 2월 13일이다. 간호사 국가고시는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한다. 연이은 100% 합격을 이뤄냈다.

이와 함께 1월 17일 전국 13개 지역에서 시행된 24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에는 졸업예정자 41명이 응시하였다. 시험을 마치고 가채점을 종합한 결과 34명(82.9%)이 합격할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80.6%)와 비교해 소폭 상승 하였는데 지난 해 1급 시험 전국 평균 합격률은 39.4%에 머물렀다.

합격예정자 발표는 2월 19일이며 서류제출을 거쳐 3월 25일 최종 확정된다. 사회복지사 1급은 3개 과목 기준, 매 과목 40% 이상, 전체 60% 이상 되어야 합격할 수 있다.

어학연수단 4명 캐나다에서 단기 연수



▲ 캐나다 Selkirk College 단기 어학연수에 참가한 학우들(왼쪽
부터 강예은(영보4), 박혜린(사복4), 셀커크컬리지 국제학생
센터 장미순 코디네이터, 김소연, 김효은(전원 사복4))

우리 대학 어학연수단 4명이 1월 5~30일까지 4주간 캐나다 Selkirk College에서 동계 단기 어학 연수에 참여하였다. 학우들은 셀커크 컬리지 부설 English Language Program(ELP)을 통해 집중 영어수업을 수강하고, 다양한 현지 문화 체험과 실질적인 영어 활용 감각을 키웠다. 참가자는 김효은(사복4), 김소연(사복4), 강예은(영보4), 박혜린(사복4)이다

참가 학생들은 수업 참여도와 학업 성취도 모두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고 캐나다의 대표 겨울 스포츠인 RED Mountain Resort 스키 트립까지 안전하게 마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새겼다.

최육열 입학국제교류본부장은 "학생들이 단순한 어학 연수를 넘어 진로와 미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월 졸업자 중 '밀알인재' 인증 32명

험난한 인증 절차에도 매년 증가세

2월 졸업자 190명 가운데 32명이 '밀알인재'에 인증자로 선정되었다. '밀알인재'는 재학 중 신앙교육과 신앙훈련 자원봉사를 통해 '말씀에 거하는 성서인', '복음을 위한 전문인', '화합과 관용의 사회인'의 인재상과 밀알 정신을 갖춘 복음전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대학이 3년째 시행 중이다. 2024년 15명, 2025년 27명에 이어 올해는 3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증에는 필수인 신앙 4개 과정(경건, 전도, FT, 성경졸업시험)과 6개 선택 훈련 프로그램(전도 훈련, FT자원봉사 등) 가운데 2개 이상(총합 3회)을 통과하면 인증 자로 가능하다. 지난 2학기부터는 KBU임팩트 봉사가 추가되어 선택영역이 넓어진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밀알인재' 인증자의 점진적인 증가는 곧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복음전도자 양성 이념이 현재 진행형의 비전임을 보여주고 있다.

찬양팀

제주 MT, 주제 'One Way'

'복음의 길로 안내하는 은혜의 예배'



▲ 모슬포교회 역사관을 방문한 찬양단원들

우리 대학 찬양팀은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One Way'를 주제로 MT를 진행했다. MT에는 13명의 팀원이 참여해 찬양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MT의 첫 일정으로 제주성서교회(담임 오종철)를 방문해 전도 물품을 전달하고, 제주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온전히 사용되도록 마음을 모았다. 제주도는 우리 대학을 설립한 고 강태국 박사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팀원들은 설립자가 생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모슬포교회의 역사관을 방문, 초기 기독교 전도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설립자의 모교회인 상징성 속에 복음 전파의 외길을 걸어간 발자취에서 현재를 돌아보았다. 저녁에는 찬양팀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지를 논의하며 복음의 길로 안내하는 은혜의 예배자 역할을 감당하자는 뜻에 공감대를 이루어 갔다. (조기쁨, 사복 3 학우의 글을 정리)

현희철 목사 회장 연임

한국성서선교회 제52차 정기총회



▲ 중앙성서교회에서 열린 제52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마친 대의원들

한국성서선교회(회장 현희철) 제52차 대의원 정기총회가 20일 오전 중앙성서교회에서 총회장 현희철 목사의 사회로 1부 예배, 2부 대의원 총회로 진행되었다.

총회는 2026년도 총회 회장에 현희철 목사가 연임되었으며, 부회장에 이우근 목사, 총무 김용호 목사, 서기 민찬양 목사, 회계 김윤규장로가 선임되었다. 실무 부서장으로 9개 위원회 위원장도 선출되었다.

총회는 권오길 목사 등 12명과 드림교회(박강한 목사), 큰사랑교회(권오하 목사)를 신규회원으로 가입을 허락하였다. 이어 위원회별 사업 보고 및 총회 결산 및 새해 예산안이 논의 끝에 통과되었다.

올해 예정된 주요 일정은 본교에서 2월 23일 목사안수식이 거행된다. 4월 26일 한국성서대학교 주일, 9월 6일 한국성서선교회 주일, 10월 목회자 체육대회와 11월 후반기 목회자 세미나가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이밖에 안건으로 국내 선교비 지원 동결 및 단체 부담금 일부 조정과 이사 감사 개인 회원의 회비 동결이 논의되어 통과되었다.

총회에 앞서 1부 예배에서 현희철 목사가 '은혜 위에 은혜'(요1:16)로 말씀을 전했다.

2025년
KBU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골든타임 팀 최우수상
'지하철 Safety Zone'

2025년 KBU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골든타임 팀(채동욱외 5명)이 '지하철 Safety Zone' 기획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하철 Safety Zone' 창업 아이디어는 '지하철 내 세이프티 존(Safety Zone)' 시스템을 설치하여 위기상황시 골든타임을 확보 할 수 있게 하였다.

경진대회에는 7개팀 29명이 참여하였으며 2025년 12월 최종 결과가 발표 되었다. 우수상은 Ongi Studio 팀 (김우성 외 3명)과 AI!(AI보다 재밌는) 팀 (송준서 외 3명)이다. Ongi Studio팀은 '버튜버 팬덤을 활용하여 광고비를 줄일 수 있는 VTuber 수집형 RPG 모바일 게임 개발'이며, AI!(AI보다 재밌는) 팀은 '비 오는 날, 젖은 바닥 으로부터 내 가방을 지키는 패션 아이템 'BAG PANTS'로 우수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골든타임팀의 아이디어는 필요성과 공공성에서 최고 수준이지만 '이런 시스템이 설치 가능하다'가 아니라 '어떤 기준과 프레임 안에서 설치 가능한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논평하였다. Ongi Studio 팀의 아이디어는 버튜버 팬덤기반이라는 방향성은 흥미롭고, 공익성이 돋보이지만 팬덤 중심의 유입구조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하였다. AI보다 재밌다 팀의 창업 아이디어는 문제 인식이 명확하고, 초기제작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실제 수요나 시장성 검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지난 3년동안 평균 92.2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참여 인원, 창업역량 면에서 크게 향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상한 팀의 팀원과 심사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골든타임** 채동욱, 방하겸, 오하준, 이성용, 임찬영, 정준영(이상 컴소 2)

▲ **Ongi Studio** 김우성, 김한별, 임선구, 진은택(이상 컴소4)

▲ **AI!(AI보다 재밌는)** 송준서, 김수아(이상 컴소2), 권민석, 김수하(이상 컴소 3)

● **심사위원**

▲ 최사랑 교수(성서), ▲ 김성호 교수(사복), ▲ 양단아 교수(컴소), ▲ 김소희 교수(간호), ▲ 윤혜진 센터장(교수학습센터), ▲ 민경은 컨설턴트(취창업지원센터)

손글씨 대회
'손끝으로 새기는 말씀'
도서관 주최
최우수상 장아희(간호 4)



도서관의 날을 기념하여 도서관(팀장 최지은)이 주최한 손글씨 대회 「손끝으로 새기는 말씀, 나의 성경 한 구절」 수상자가 지난 2025년 12월 17일 발표 되었다. 최우수상은 장아희(간호 4) 학우가 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선정되었다. 우수상은 고유미(간호3, 이사야 41장 10절), 이금주(성서3, 빌립보서 4장 13절) 학우가, 장려상은 이세은(간호 4, 잠언 3장 5~6절), 김채원(사회복지 3, 고린도전서 13장 4-7, 13절) 학우가 차지하였다. 이 대회에는 모두 86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는 성경 말씀을 직접 필사하며 손글씨의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말씀 묵상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되었으며, 학생들은 각자 선택한 성경 구절을 손글씨로 표현해 정성과 메시지를 담아냈다. 평가는 성실성, 가독성, 표현력을 기준으로 심사되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품권이, 참가자 전원에게는 음료 쿠폰이 제공되었다.

▲ 최우수상
장아희(간호4)

▲ 우수상
이금주(성서3)

▲ 우수상
고유미(간호3)

총장의 편지

되는 집은 손님이 많습니다



최정권 총장

적막강산 같이 오가는 이 없는 집은 보기에만 안쓰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버림받은 증거입니다. 버려진 집의 특징은 잡초와 쓰레기입니다. 그 집 마당과 대문은 잡초로 덮이게 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온갖 쓰레기가 더미를 이루게 됩니다. 이걸 잠언의 솔로몬 왕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였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잠언 24:30~2절)

작고 아름답고 강한 대학은 그냥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실천 사항인데 그 가운데 아름답다는 말은 우리 대학의 머물고 싶은 공간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학교 규모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 우리 힘으로 늘려 갈 수는 없지만 그 규모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건물에 디자인을 입히고 만나보리 광장에 잔디를 살리고 건물 안의 냄새를 향기로 바꾸고 교정 곳곳에 학생들이 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많이 바뀌었고 바뀌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광장입니다. 정문과 후문으로 들어왔을 때 넓게 보이는 시각적 공간 확보가 중요한데 이 공간 확보가 총장의 또 다른 관심사입니다. 노후화되어가는 건물의 유지보수와 고정비 증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새 학기

시작 전에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고 합니다.

맛집만 손님이 많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학교도 손님이 많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대학을 다녀간 강사들과 대학 총장님들의 수가 많아졌고 특히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이끌 차세대 목회자들이 우리 대학에 와서 깊은 인상을 받고 가셨습니다. 이중에서도 감사한 건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들입니다. 이번 FT 강사도 모범적으로 목양해 오신 미국 알바인 베델교회 김한요 목사님과 ‘King of kings’ 의 장성호 감독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모시기 쉽지 않은 분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대학을 방문, 학생들에게 각 분야에서 어떻게 복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번 강사진 중에는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EBS 아나운서로 활동하는 권영빈 형제가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긴 과정에서 겪었던 좌절과 아픔 인내를 우리에게 말해 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어총장(어쩌다 총장)이 된 지 2년이 지납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일뿐이고 주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컸는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남은 임기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작고 아름답고 강한 대학을 안고 변함없이 벤세메스 암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지 직원(지역사회임팩트센터)

신은지
직원
면



황다애(성서 2)

면

추운 겨울에 꼭 누려야 할 작은 행복들

많은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계절로 봄이나 가을을 꼽습니다. 성서대는 가장 먼저 아름다운 벚꽃이 생각날 정도로 풍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벚꽃의 계절은 찰나로 지나갑니다. 길고 추운 이 계절을 그저 견디며 봄만 기다리기엔 너무 아쉽지 않나요? 겨울에 꼭 누려야 할 것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겨울 간식'입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현금 삼천 원을 품고 다녀라'는 말은 겨울에서 처음 비롯 되었습니다. 봉어빵, 호떡, 어묵 등 따끈한 겨울 간식을 마주하면 주저 없이 품고 있던 삼천 원으로 행복을 맛봐야 합니다. 추운 겨울에 먹는 따끈한 간식은 우리의 시린 마음을 채우며, 어딘가 온 몸이 든든해진 느낌에 추위마저도 잠시 잊게 합니다.

두 번째는 겨울만 가능한 하얀 '눈'을 즐기는 것입니다. 눈이 오는 것이 신나지 않고 '예쁜 쓰레기가 하늘에서 내린다'라고 느낀다면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마법처럼 그저 하얗게 만들어 놓는 능력은 '눈'에만 있는 은사입니다. 꽃과 나뭇잎까지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마다 고요히 소복소복 쌓여 피는 눈꽃과 마주하면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세 번째는 '따뜻함'입니다. '따뜻하다'에는 추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말입니다. 추운 겨울, 바깥에 머물다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누군가의 체온과 같은 따뜻함에 온 몸이 황홀합니다. 손이 시려 호호 불며 집으로 향할 때 차로 데리러 와주는 누군가의 마음, 날이 춥다며 옷을 많이 입고 다니라고 걱정을 해주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마음은 더욱 따뜻해집니다. 얼마 전 봉사활동에서 감사하다며 손을 잡아주는 할머니의 손이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의 웃음과 선한 마음 또한 따뜻하게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겨울이 춥다고 마냥 움츠러들기만 한다면, 겨울이 주는 이 소중한 선물을 놓치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 있기에 따뜻함이 더 소중하고, 긴 겨울을 지나야 봄을 더욱 기다리게 됩니다. 이번 겨울, 벚꽃이 피기 전까지 겨울만이 줄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삶의 목표

고등학교 시절,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곤 했다. 주변에 반짝이는 강과 재건축된 아파트로 시야를 가득 채우던 어느 날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왔다. "만약 돈을 버는 목적이 단지 밥을 먹고, 더 좋은 아파트와 더 좋은 차를 가지기 위함이라면 나는 과연 돈을 벌고 싶을까?" 하는 질문이다. 동시에 또 다른 한 가지가 내면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돈을 벌고 잘 모아서 집과 차를 사는 삶이 아니다. 언젠가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나는 그곳에 교회와 고아원, 노인복지시설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강렬한 목표였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는 깨달음이 함께 다가온 것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목표를 가지고 분주히 살아간다. 대부분은 많은 돈을 벌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삶을 꿈꾼다. 어떤 이는 명예로운 직업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걸 목표 삼기도. 또 다른 누군가는 안정적인 직장과 자가, 자차를 갖고 자녀들과 1년에 한번 해외여행을 다니는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바란다. 이러한 목표들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들이 '목표'가 될 때이다. 그것들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일 수는 있지만 크리스천에게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왜 사는가?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말한다.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있다. 우리는 과연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수단을 목표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삶이 될 수 있다. 오늘 하루,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는지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반세호의
목양칼럼



반세호 목사
(성서대학교회 담임)

‘간절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한 교수가 제게 보내준 메시지 문장이 오래 남았습니다. “목사님, 눈물이 나려고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꿈 참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참겠습니다”라는 말 안에 담긴 무게를 느꼈습니다. 참는다는 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는다는 건 무너지지 않으려고, 마지막 힘을 하나님 쪽으로 향해 시선을 돌리는 고백입니다. 그건 이미 믿음의 방향 전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갑자기 대단한 삶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사정이 달라져야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기 때문에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 되었다고 말합니다(출2:23). 눈물 섞인 기도는 하늘에서 ‘소음’이 아니라 ‘신호’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특별새벽기도회’의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간절함의 자리.” 간절함은 기도를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간절함은 “내가 더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시116:7) 후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지친 자를 품으시고 다시 숨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새해는 ‘후회가 사라지는 달이 아니라, 후회를 하나님께 맡길 기회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의 실패를 지우개로 지우듯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실패를 ‘끝’으로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위에 새로운 의미를 쓰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무릎입니다. 아주 작은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저는 버겁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새해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 그 무거움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새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시간이 아닙니다. 새벽은 버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대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시 용기를 냅시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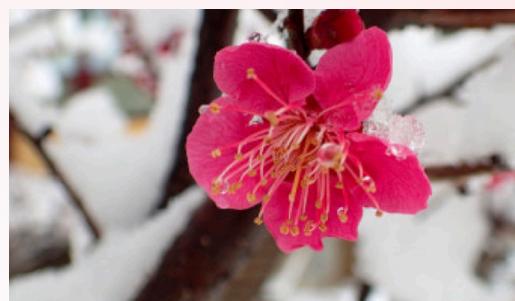
봄빛 임경미

네가 먼저
잎눈이 꽃눈에게

네가 먼저
꽃눈이 잎눈에게

서로에게 내어주는
봄의 첫 자락

봄빛
봄내음



<https://blog.naver.com/ff4ss/220290685657>

두꺼운 옷에, 텔신에, 모자에… 언제쯤 추위가 가시려나 발을 동동거리다 문득, 눈쌓인 나뭇가지를 보았다. 햇살이 살포시 내려앉자 촉르륵촉르륵, 회갈색 가지 끝마다 물오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닿는 자리마다 어느새 겨울은 조금씩 밀려나고, 그틈으로 봄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잎눈이 말했다. “봄이야! 꽃눈아, 네가 먼저 피어나.” 그러자 꽃눈이 대답했다. “아니야, 잎눈아, 네가 먼저 피어나.” 네가 먼저, 아니 네가 먼저. 서로에게 봄의 첫 자락을 내어주려는 잎눈과 꽃눈의 양보가 봄 동산을 노란빛, 분홍빛, 연둣빛으로 포근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봄이 눈부신 이유는 이렇듯 서로의 자리를 내어준 다정한 마음 덕분! 먼저 피어나려는 욕심보다 함께 피어나려는 그 따스한 양보가, 우리 마음에도 맑고 밝은 봄빛으로 피어났으면 좋겠다.

설악 둘

최정권 | 202602



잘 먹고

잘 쉬고

재밌게 일하자는 구호 아래 떠난 교직원 연수회에서 만난 바위를 그렸습니다.

지난 두 해 동안

안 가본 길을 걷기에 버거워진 눈이 앞에서 있는

설악이라는 자신의 이름 아래

민낯을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하게 드러낸 모습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왔습니다.

눈앞에 존재하는 저 산이 매일 똑같은 모습이라면
그 동일함에 아마도 숨이 막힐 겁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어도 시간이라는 지평 속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동일함의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저 산이 고마울 뿐입니다. 아마도 저 산의 바위는 날 스쳐
지나가게 하지 않고 머물게 할 겁니다.
지금처럼

국립어린이과학관에서 과학의 원리를 체험하고 있는 유아들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가가호호 상생 봉사단이 후원한 치킨 160 마리



데이캠 파크의 겨울 현장학습에 참여 중인 영유아들



반세호 목사가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서울과기대에서 눈썰매장을 체험한 후 함께 한 아동들



| 대학어린이집

국립어린이과학관 현장학습

22일 유아들의 다양한 경험적 확장을 위해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국립어린이과학관은 탐구, 관찰, 행동, 생각과 AI놀이터, 천체투영관으로 이루어져 직접 보고, 만지고, 질문까지 과학적 탐색을 경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유아들은 천체투영관에서 미디어아트로 별과 우주에 관한 상영물을 감상하며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웠다. 다양한 놀이 공간에서는 과학적 원리 중심의 놀이와 배움을 오감으로 체험하며 미래 과학도의 꿈을 품게 해주었다. 우리 어린이집은 다양한 현장학습을 통해 과학적 사고영역이 확장되도록 지원해 갈 예정이다. (사랑반 교사 이지혜)

| 월계중합사회복지관

치킨 나눔 활동

12월 30일 호식이두마리치킨 '가가호호 상생 봉사단'이 100회차 봉사를 펼쳐 지역민에게 치킨 160마리를 후원해 주었다. 본부 직원과 월계 1호점 및 월계 자원봉사자 7명이 후원받은 치킨을 지역 내 아동·청소년 가정에 전하였는데 연말에 가족 간 화합과 나눔 그리고 사랑과 감사의 선물이 됐다.

보호자 중 한 명은 "치킨값이 상승하여서 사주는 게 부담됐는데 이렇게 후원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번 활동이 월계복지관과 지역 상점, 주민 간의 나눔과 연대의 의미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지역 기반 자원 연계 활동을 지속해 갈 계획이다.

(지역사회조직팀 이동재)

| 끊임없이집

데이캠 파크

9일, 꿈빛어린이집 영유아들은 의정부에 위치한 데이캠 파크로 겨울현장학습을 다녀왔다. 과자집 블록, 얼음낚시와 볼풀장 놀이, 초코퐁듀 체험 및 겨울 음식 가게 놀이 등 '겨울 라운지' 주제의 공간이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직접 빼빼로를 만들고 간식을 맛볼 수 있는 초코 퐁듀 체험과 과자 블록으로 멋진 집도 만들어 보았다. 또 얼음낚시, 볼풀장 놀이, 겨울 음식 놀이에서는 따뜻한 먹거리를 함께 나누며 겨울 감성을 새겼다. 추운 계절에 즐길 다양한 놀이의 이번 현장학습이 모두에게 따뜻한 온기와 추억을 안겨 주었다. [목련반 교사 호한나]

| 성서대학교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5일~ 9일까지 '간절함의 자리'로 신년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졌다. 반세호 담임목사는 신년을 맞은 성도들이 주님께 더욱 순전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무릎을 꿇는 삶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한 부르짖음'(엡 1:16-19)과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부르짖음'(엡 3:14-19)이 요구된다. 또한 '약함 속에 은혜를 구한 부르짖음(고후 12:7-10)' '현되지 않은 인생을 위한 부르짖음'(골 1:9-12), 그리고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부르짖음'(롬 9:1-5)으로 말씀을 전해주었다. 마지막 날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암수기도를 통해 큰 은혜와 비전을 간구하는 시간이 됐다. [홍성진 목사]

| 끊임없이아동센터

눈썰매장 체험

13일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서울과기대에 마련된 눈썰매장 문화 체험장을 다녀왔다. 아동들은 매서운 추위에도 셀리임과 즐거움을 안고 현장에 도착했다. 친구들과 용기를 내어 슬로프와 놀이기구를 탔고 온몸으로 전해오는 스릴과 짜릿함이 경쾌한 쾌감을 안겨주었다. 서로 웃고 떠들며 끌어주고 챙겨주는 의로운 모습에서 따뜻한 감동의 마음까지 느끼게 하였다. 날은 추웠지만 아동들의 함박웃음과 행복한 기분을 안겨준 날이었다.

이번 체험이 도전 정신과 협동, 배려,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는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유아랑 센터장)

2026 어린이집 재무회계교육 안내 포스터



어린이집 재무회계교육

29일 오후 노원구 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2026 어린이집 재무회계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교육은 어린이집 담당자의 결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 회계 기준에 부합하는 업무가 이뤄지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에서 결산과 회계의 기본 개념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 어린이집 담당자들의 결산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센터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돋는 재무·회계 관련 다양한 교육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송재경 보육전문요원]

장애 통합 학부모들이 나태주 시인의 책으로 정서적 치유를 나누고 있다.



장애 통합 학부모 평가회의

20일 장애 통합 학부모 평가 회의를 나태주 시인의 책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책으로 진행하였다.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공감을 주는 시,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단어로 표현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학부모들은 짧고 따뜻한 언어로 구성된 시로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며 서로에게 공감과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였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기쁨, 불안과 희망을 표현하며 나태주 시가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학부모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앞으로도 장애 통합 부모 모임으로 치유와 공감 및 긍정적 양육과 자아 성찰 등을 이루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누리반 교사 강혜진]

뽀로로 테마파크 현장학습에 참석한 영유아들



뽀로로 테마파크 현장학습

영아들이 뽀로로 테마파크 놀이 경험 학습에 다녀왔다. 영아들은 낯선 현장에 빨리 적응하며 뽀로로 자동차와 움직이는 기차에 탑승, 다양한 신체 움직임 등을 경험할 수 있었다. 점핑 놀이, 편백 나무 놀이, 미끄럼틀 타기를 비롯해 소꿉놀이 등의 신체 조절 활동을 즐겼다. 뽀로로와 함께하는 공연 속에서 자신의 몸을 활용한 표현까지 경험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영아의 반응과 놀이 수준을 조절하며 안전한 상황이 되도록 배려하였다. 앞으로도 놀이와 흥미가 상호작용을 일으켜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낳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해 갈 예정이다.

[신나는반 최호정 교사]

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 연합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



연합간담회

20일 서울경찰청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 연합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서울 경찰 치안파트너스 간의 상호 협력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고 각 기관별로 역할과 활동 현황 공유와 향후 지역사회 치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러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한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과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었다.

간담회를 계기로 서울 경찰과 협력 강화 및 관계성범죄 피해자 지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연계 활동을 계속 추진해 갈 계획이다.

[김지수 상담사]

「성서대학돌기운동」기부현황

- | | |
|--------|---|
| ■ 기부기간 | 2025년 12월 21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 ■ 국외기부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
| ■ 접수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홍설자(이사)	1억250만원(운영)	김창원(이사)	140만원(운영)
강우정.강 진(이사장)	3322만원(운영)	김승옥(한국성서대학교)	140만원(운영)
성서대학교회(반세호 목사)	2005만원(운영)	정휘진(법인)	103만원(운영,장학)
오에스더(설립자 가족)	1467만원(운영)	이호우(33회)	100만원(운영)
주문진중앙교회(최승선)	200만원(운영)	교수부(교수상조회)	100만원(장학)
최정권(한국성서대학교 총장)	192만원(운영)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구좌 강수형 김나현 김선근 김성애 김시은 김은민 문홍철 박경진 박서영 박선주 백명희 백서영 서희영 양지환 유주홍 윤영원 이동혁 이세은 이승아 이수연 이수진 이윤경 장호성 정진영 지현환 최신혜 최예인	1구좌 임동화 정현규 6구좌 정주화 교직원 및 가족 1구좌 김호현 전귀선 10구좌 김정원(신) 20구좌 김창원 부설기관 3구좌 유정현 동광교회 1구좌 김복례 성서대학교회	1구좌 오경원 이가은 이대한 이지수 이진호 주향교회 10구좌 주향교회 중앙성서교회 1구좌 김정희 2구좌 이준구.안춘자 5구좌 중앙성서교회 원로·은퇴장로회 효성교회 2구좌 한옥경 일반	1구좌 고관표 고나연 고다연 고민수 김민경 백은경 오형준 이성희 조목장 조성민 최경숙 최범식 허수보 2구좌 이연식 단체 및 기관 1구좌 행복한교회 10구좌 두암산업(주) / 청평교회 지역사회 1구좌 서애진 오동준 5구좌 진양희
3구좌 활영숙 5구좌 송복순 재학생 및 가족			

동문 및 가족										
5천원	김남혜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은애	이의선	이재은	이종임	심회경
1만원	강나경	강민아	강순성	강애슬	이상필	이석호	이선정	이수경	이수진	이성경
	강옥경	강정희	강주옥	고대운	이수진	이신재	이영식	이용원	이윤아	이미숙
	고재민	공승천	곽미화	곽원균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우	이현우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길	이정익	이정훈	이중근	이이	이혜영	이혜연
	권순웅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이정진	이철승	이학준	이해렬	임상일	임삼일
	권희조	금동욱	금필규	기성혁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란	임수경	임윤희
	김가영	무명	김명희	김명희	이희원	이희연	이희정	이호경	정나나	정유정
	김무엘	김민정	김민음	김병렬	임운경	임정희	임정희	임정숙	정재원	정재원
	김선근	김선태	김성애	김세현	장강봉	장희남	장희남	장희남	장윤국	장윤국
	김소영	김수연	김수정	김순덕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예진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김유미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김은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김재현	김정희	김진	김진숙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김진영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김현정	김현진	김현철	김화석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나선영	남범수	남성휘	노정현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노한나	도만	류요한	류한나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류희경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문홍철	박경수	박성준	박수진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박순임	박윤복	박재숙	박재신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박종주	박지영	박창민	박태익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방지연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백연우	백연주	백해승	백향목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변지윤	서민경	서유미	서 응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서진희	서현	서희영	손명배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손명화	손진규	송민규	송향숙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신연정	신영우	신은혜	신지은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신두한	신미자	심희남	안현정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양은숙	양주향	양혜영	엄미자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엄보라	엄보영	오찬미	오채연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용아름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유수정	유영진	유주홍	윤영원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윤정숙	윤지준	윤현중	이광삼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이근중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장기봉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김유진	이예람	조성찬	6만원	정동주	10만원	김선옥	김종숙	김진만	김강서
2만원	강은해	곽자운	구연민	8만원	배정환		김광장	김기수	김종수	김기수
	권오진	권지연	김구리	10만원			김종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복녀	김성훈	김연정	김연주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김영래	김용태	김용길	김월미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김은하	김재원	김재철	김정복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노민지	류충열	박민주	박성주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박인순	박재승	박주영	박준호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박혜숙	소경숙	송인성	신기한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신성철	신경섭	신화영	안선례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양연주	유미영	유의숙	윤광길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이광석	이권호	이기주	이나연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이마리	이상복	이선영	이슬강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이예원	이우진	이유미	이유진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2만원	강성철	김민서	김윤영	나예린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박운경	박한	백인애	송지민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김기수

기부자 명단

2만3천원	기민주 김남준 김세원 김강호 박예진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이은혜 이지민 장길정 장지순 정순애 최난영 한상만 한경숙 박태복 임수아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2만원 김의남 박문수 3만원 왕순희	박기숙 박명숙 박수명 박재균 서경숙 서병준 서성원 안은숙 이일신 이재한 이태일 임홍직 장단희 정주아 정 진 정형채 조혜령 최지연 한동훈 허정안 홍춘호 행복한교회
	2만5천원	김덕원 김봉재 신은지 이소연 정옥환 하희수 3만월 권오섭 방진희 이소연 이철희	삼일성서교회 1만원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한금순	3만원 장문석 추영철 5만원 석지현 이천화 주은자
	3만3천원	신 군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윤인호	10만원 김복례 서미혜 무 명 우남용
	3만5천원	반우형 서한나 진달래	성서대학교 4천5백원 정태성 9천원 강유진 박지숙 오경모 오경원	40만원 박순정
	4만5천원	문건희 문지예 민경은 배민정 정지용 조철남 5만월 구광연 김성호 김원빈 박상민 양단아 이길영 강경순 헌우석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은 이대영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83만6천원 김진승
	5만5천원	고윤정 김창현 양희정 여진희 유수연	1만8천원 권은정 김문정 김봉준 김사천 김성은 김성철 김애숙 김유미 김은미 김인영 김일선B 김지운 김현미 김희진 박영숙 박영신	단체 및 기관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꿈꾸는교회
	6만5천원	윤혜진	서영우 서 훈 석경순 송정희 안봉숙 안중인 양태환 오치숙 윤도진 윤재필 이경한 이관영	/늘푸른교회/암키즈푸드 /목양교회/무진인터넷날
	7만5천원	김병수 김현동 신재윤 유미나 이상일 강성희 전영호	10만원 고세정 김세현 김순애 김영미 김용술 김의자 김정희 김춘배 박혜원 안승수 이상규 이수연 이승학 이태학 최영란	/주님손교회/행복한교회
	8만5천원	권순범 신지수	2만원 신영옥 이해영 강영애.신한성 이준원.안준자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에이스외식산업
	9만5천원	임한석	3만원 권순호 김덕규 4만원 오근수 5만월 이경식 이우근 한금례 중앙성서교회 원로·은퇴장로회	/도새기장/동신자원 /바르고복된교회/열방교회
10만원	강경원 고미숙 권용준 김소희 김정숙 김현광 김현우 김형미 문무열 배진형 안창선 안현미 오은주 원영희 이민규 이성아 이소정 이슬기 강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영태 최은희 김정원(신) 김정원(영)	10만원 강근문 장은경 장진희 정갑순 조병화 조정선 조한나 천재우 최인숙 한성실 한순애 허진호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한상욱 현희철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3만원 우리교회 /의정부좋은나무교회 /주식회사 이수전기
	12만5천원	신금주 최사랑 최우열	12만원 황인돈.김순자 15만원 이해선	4만원 플랫팅시즈 5만원 녹수교회/다드림교회
	13만5천원	최지은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미사목민교회/사랑샘교회 /예일에드컬/천성교회 /행전교회
	13만9천원	강일아	1만원 윤은정	10만원 (주)바다나라 /㈜이레E&C이레디자인
	15만원	강규성 김은호 김희수 안경선	6만3천원 이정임 9만원 권경만 권태완 길용희 김원태 김주아 노봉환 박세건 박운유	/가성교회/구리중앙교회 /도봉성산교회/동산교회 /두암산업(주)
	17만5천원	권경만 김덕만 한진호 20만원 김주아 박태수	10만원 최대만 한진호 10만원 길용희 18만원 김영현 이경신 임성일 최순남	/상록교회/성북중앙교회
	23만원	김중완	81만원 무 명	/의정부제일교회 /전주서부중앙교회 /청평교회/평안교회(신병수)
	25만원	임지영	2005만원 성서대학교	20만원 전하석/인천제2교회 30만원 한민제일교회
	27만9천원	강일석 35만월 최선희	성서선교회 2만원 금촌성서교회 3만월 푸른동산교회 5만월 동두천성서성김교회 10만원 다빛교회/삼일성서교회	37만8천원 홍콩중앙교회 50만원 동서환경(주) 100만원 교수부
	37만5천원	이강동	세빛교회 5만원 세빛교회	지역사회 1만원 김은지 김지은 김하예 송유정 유주연 유희주 이유리 이은정 임재택
102만5천원	102만5천원	정휘진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흥성호 황병숙	2만원 윤종찬 허성보 3만월 구세란 문유나 박미라 오윤아 5만원 이지연 7만월 김선희 35만원 오동준
	140만원	김승옥 김창원	어린양교회 1만원 김정희 2만원 한지화 3만월 임윤창 5만월 어린양교회 7만월 이정선	소계(20251221~20260120) 210,100,143
	192만원	최정권	일동성서교회 1만원 정은미 2만원 강명옥 강상래 권소영 길미금 길옥석 김동석 김성래 김윤숙	누계(20250301~20250120) 1,111,156,720
	1467만원	오에스더		
	3322만원	강우경.강 진		
	1억250만원	홍설자		
	부설기관	1만원 김효진 호한나 3만월 권효진 박천순 변승이 안미희 유정현 장나혜 5만월 박연희 이인경 월계지역아동센터 10만원 김선영 박빛나 장수진 조지선 차도영 15만원 권정아 김화영 지주나 20만원 김신덕 차 건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배 윤.김현진		

한국성서대학교 1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7,192,000원)

주문진중앙교회(최승선 목사) 2,000,000원 | 김승옥(교직원) 1,400,000 | 길용희(법인 이사) 1,200,000
김창원(법인 이사) 1,200,000 | 이호우(동문) 1,000,000 | 전영호/신재윤(교직원) 142,000
도새기장 (일반) 100,000 | 한상욱(중앙성서교회) 100,000 | 정주화 (학부모) 50,000

약정 후원자 (36구좌, 연간 납입예정액 4,320,000원)

10구좌 동산교회(한준희 목사) | 6구좌 정주화(학부모)

2구좌 권오진, 김민기(동문) 김민경(중앙성서교회)

1구좌 김나현, 김수정, 김시은, 김호현, 박서영, 백서영, 이수진, 이윤경, 이창호, 최예인(이상 동문) 고관표, 고나연, 고다연, 고민수(이상 중앙성서교회)

일시납 누계(2025.3.1~2026.1.26) 340,479,240원 | 약정자 누계(2025.3.1~2026.12.26) 497구좌 | 연간 납입 예정액 59,640,000원